

2016년 1월 후원회원 후원금 시용 내역서

<수입 내역>

| 후원금 입금 현황 | | | |
|-----------|------------|-------|-----------|
| 수입총액 | 26,679,537 | 전월이월금 | 148,437 |
| 지 로 | 4,292,020 | 우리은행 | 8,198,410 |
| 국민은행 | 5,851,310 | 하나은행 | 1,781,120 |
| 조흥은행 | 155,010 | 신한은행 | 1,560,170 |
| 외환은행 | 997,640 | 제일은행 | 1,260,040 |
| 농 협 | 1,705,300 | 기업은행 | 290,080 |
| 우 체 국 | 90,000 | 지정기탁 | 350,000 |

<지출 현황>

| 후원금 지출 현황 | | | |
|-----------------------|----------|------------|-----------------------------------|
| 항 목 | | 지 출 | 세부내역 |
| 단 체 찬 조 비 | 베들레헴어린이집 | 11,400,000 | 인건비, 주부식비, 교육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등 |
| | 베다니아의 집 | 1,311,000 |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등 |
| | 벗들의 집 | 925,000 |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행사비 등 |
| | 마고네공부방 | 600,000 | 간식비, 교육비 등 |
| | 몽골공동체 | 200,000 | 제전비 |
| | 남미공동체 | 300,000 | 제전비 |
| 소 계 | | 14,736,000 | |
| 지원금 | 노동사목위원회 | 5,070,000 | 장기수선총당금 등 |
| 운영비 | 이주사목위원회 | 4,025,000 | 운영비 등 |
| 지정기탁금 | 지정기탁 | 490,000 | 산재, 진폐환자가정 생활비 |
| 지 출 총 액 | | 24,321,000 | 잔액(이월금) 2,358,537 |

<쉼티 이용 현황>

| 구 분 | 이월자 | 입소자 | 퇴소자 | 현재 |
|----------|-----|-----|-----|----|
| 베들레헴어린이집 | 28 | 1 | 0 | 29 |
| 베다니아의 집 | 3 | 0 | 0 | 3 |
| 벗들의 집 | 12 | 2 | 3 | 11 |
| 사랑의 집 | 12 | 0 | 0 | 12 |
| 마고네공부방 | 8 | 0 | 0 | 8 |



즐거움 중에도 주님을 섬겨라

후원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하느님 아버지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느 해 보다 일찍 사순시기를 시작하면서 새해의 계획을 제대로 실천하기도 전에, 지나온 삶을 돌아본다는 것이 무색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덕분에 제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하여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키워드는 교회의 매체에서 흥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자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작년에 "자비의 해"를 선포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자비로워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자비를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많은 글과 영상과 말씀을 듣고 마음의 평화와 감명, 위안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자비를 실천에 옮기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주사목위원회로 소임을 받고 이주사목을 시작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매해 새해가 되면 의기소침하고 불안해지는데 올해는 유난히 더 힘이 듭니다. 그건 아마도 국내이주사목위원회에서 함께 일했던 많은 성직자와 수도자들이 새로운 소임지로의 이동으로 그들을 보내야 하는 아쉬움과 더불어 새롭게 오시는 분들에 대한 환영과 기대감 등이 교차하면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 때문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깊게 이 상황을 이주사목의 눈으로 본다면, 새로운 소임지로 가시는 분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고 살아가야하는 이주민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이주사목에서 사목을 하고 있는 저는 원주민으로서 새로 오시는 분들의 정착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새롭게 이주사목을 시작하는 분들과 어떻게 협력하느냐?'가 저에게는 또 다른 작은 이주사목인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모두는 이주사목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많은 이들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이주해 옵니다. 이들을 환영하고 맞아들이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작은 실천일 것입니다. 지금은 정착해서 살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주하여 이주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황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이주민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날 것이고 이주민으로서 하느님을 뵈게 될 것입니다. "자비는 하느님께서 우리는 만나러 오시는 궁극적인 최고의 행위입니다." (자비의 얼굴 2항)

아직까지 어떻게 자비를 실천할 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위를 살펴봅시다. 이주민이 있다면 그를 환영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함께 합시다. 물질이든, 기도가든 모든 것들이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마음으로 함께 한다면 우리 모두는 자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2016년 사순시기를 시작하면서

이주사목위원회 부위원장 **김평안** 신부

공지사항

1. 후원미사 안내

매월 세 번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3월 후원미사는 21일, 4월 후원미사는 18일, 5월 후원미사는 16일에 봉헌합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후원회원은 노동사목회관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문의: 02-924-9970~1).

2. 베다니아의 집 소식

2015년 1월에 베다니아의 집에서 요양한 환자는 4명입니다. 그 중 필리핀 환자(여, 71세, 기혼, 가사도우미)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 환자는 2003년에 입국하여 보증금이 없는 월세 20만 원짜리 방에 살고 있으며, 월급 120만 원 중 매달 80만 원을 본국에 송금하며 생활하였습니다. 본국에 있는 생활능력이 없는 아들과 손주들의 학비 및 생계비를 보내기 위해 가사도우미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하던 중 2015년 11월 17일에 우측 대퇴부 골반 골절사고 당했습니다. 통증으로 일을 못해 쫓겨나 집에 누워만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가 사정을 알고 필리핀 공동체 담당 신부님께 사정을 전했고, 그래서 공동체를 통해 지난 12월 10일 적십자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입원 다음 날인 12월 11일 뼈에 피스를 박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담당의사 소견은 사고 후 한 달가량 지나고 입원한 경우로 뼈가 제대로 붙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인공관절을 넣어야하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경과가 좋아 2월 1일에 병원 희망진료센터의 지원을 받아 병원비 70% 감액 받고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일이 불가능하여 2월 5일 외래진료 후 물리치료가 끝나면 귀국하기로 했습니다.

베다니아의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 모든 환자들이 하루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후원회원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3. 베들레헴 어린이집 소식



독서시간



놀이학습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행사

설은 우리의 최대명절이며 아시아권에서도 그 어떤 날보다 크고 중요한 명절입니다. 이런 날을 고향과 가족을 떠나온 이들이 함께 기념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월 4일 노동사목회관에서 명절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 날 행사에는 130명의 결혼이민자가 참석하여 미니올림픽으로 함께 땀 흘리며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국가별 전통의상을 소개하며 자국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 결혼이민여성들이 직접 만든 쌀국수를 먹으며 설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